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삶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 일 예 배 2025년 9월 14일 오후 1시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주 우리 하나님 / 찬송가 14(신) 30(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 393(신) 447(구)

기도 / 한광기 장로

성경 봉독 / 디모데후서 3장 1-17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헛된 배움이 되지 않도록 / 박화신 목사

찬송 / 내가 매일 기쁘게 / 찬송가 191(신) 427(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진리와 생명 되신 주 / 찬송가 630(신) 547(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첫째,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준비된 제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눅 6:40)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천체에서 작은 개미까지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지만,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성경 말씀입니다(시 119:102). 성경을 읽어도 항상 새로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셋째, 배움에는 책임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배움은 쉽지 않을 때도 있고, 시험과 책임이 따릅니다. 디모데후서 3:7처럼, 단순히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생명샘 장로교회 2025년 표어

디모데전서
4장 15-16절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난 주일 설교 / 힘들 때의 찬양 / 시편 86편 1-13절

1. 성경의 인물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은 현재 우리의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엄청나고 정말 힘들었던 것들입니다. 막강한 왕권을 누린 다윗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 그가 수 많은 찬양의 모범을 우리에게 남긴 것은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2. 다윗의 찬양의 시는 단순히 ‘찬양’ 만이 아닌 기도와 신앙고백 그리고 심지어 ‘고소’와 더불어 하는 절규가 함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는 인간의 부족할 수 밖에 없는 믿음의 모든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3.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말이지요. 은혜의 목마름을 호소하지요.

4. 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한 상황을 부르짖습니다. 외롭고 의지할 때 없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지르며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말이지요.

5. 다윗은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할 수 없어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때가 많으니 제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6.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찬양을 선포하지요. 맞습니다! 힘들 때 찬양을 잊지 않고 합니다. 힘들 때의 찬양은 우리의 경건을 책임집니다. 힘들 때의 찬양은 성숙한 기도를 낳게 합니다. 힘들 때의 찬양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힘들 때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합니다. 힘들 때의 찬양은 또 다른 진리를 사모하게 합니다. 힘들 때 찬양하십시오!

생명샘소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라는 표어로 남은 귀한 시간들을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으로 성숙해지는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글로새서 공부를 통해 귀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5. ‘내 인생의 찬송’을 하나 정하시기 바랍니다.
6. 다음 주일 EM과 연합 예배드린 후 교회 고기 파티가 있습니다.

7. 교우소식

최명희 권사님(권사 합창단) 오늘 연주 있습니다.

8. 이번 주 기도제목

강승우 선교사님(파라과이)을 위해(원주민 전도에 지치지 않도록)

금요 성경공부(글로새서)에 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교우들의 건강과 기도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월 예배위원

안내	박래석	최명희
----	-----	-----

기도	조창(7)	박승화(14)	한광기(21)	최명희(28)
----	-------	---------	---------	---------

교회모임안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제직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성경공부	성경 읽기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성경 말씀에는 다윗의 기도에는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정작 기뻐하는 것은 다윗 자신인데 말이지요. 다른 사람이 나 자신에게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할 수 있나요? 기쁨이야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기본 일이 생기면 저절로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요?

차라리 “주여 나에게 기본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오히려 더 가깝고 또한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왜 굳이 마치 기계 스윗치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듯이, 나의 솔직한 기분과 상관 없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다윗 스스로의 감정 혹은 의지를 자신이 조절할 수 없고 절제할 수 없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불평, 불만이 있고 분노와 혐오가 가득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친하고 싶었습니다. 머리로만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는 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의 원하심을 살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도움을 간절히 요청한 것이지요.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철저히 그분과 동행하길 원했기에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